

## 「중남미 전기공업 시장동향」 발간

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세계 유망 수출지역을 대상으로 전기공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을 조사, 지역별 해외시장 정보시리즈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련업체에 정보자료로 제공하고 있다.

그동안 중전기기 유망 수출지역인 동남아, 동북아, 서남아 지역의 전기공업 동향을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 있는 진흥회는 금번 해외시장 정보시리즈 제4집으로 「중남미 전기공업 시장동향」 책자를 발간하였다.

이번에 발간된 「중남미 전기공업 시장동향」 책자에는 멕시코, 아르헨티나, 칠레,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에 대한 국가개황, 전력시장 동향, 전기공업 동향 및 입찰기관, 수입상 리스트 등 이 지역 진출에 필요한 정

보를 광범위하게 조사, 수록 하였다.

이번 중남미 지역을 선정하여 시장동향을 조사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중전기기 업계의 주력 수출시장이었던 동남아, 중국 지역에서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시장진출의 한계점에 직면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시장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조사되었다. 특히,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 여건 및 경제교류 부진등으로 정보 취득이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보조사를 계기로 이지역 진출을 노리는 업계에서는 좋은 정보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앞으로도 우리 중전기기 업계의 수출 전력화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 가능 지역의 시장정보를 수집,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.